

일본 TTC의 92년도 사업계획

譯/배우경/표준화국

최근, 전기통신 분야는 눈부신 발전을 이룩해 왔으며, 당 위원회의 표준화 활동도 증대하고 다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세계적으로 같은 추세에 있으며, 효율적인 협조가 요청되는 국제 표준화 활동에 대한 당 위원회의 공헌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 위원회는 설립 이래, 위원들의 노력에 의해 135건에 달하는 표준을 작성하였고, ISDN의 보급을 시작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성과를 이루고 있다.

전기통신의 사회적 사명이 21세기에는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표준화에 부여되는 역할이 점점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 하면서, 표준화 활동을 계획적 또는 효율적으로 하는 동시에, 국제적 지위의 향상과 책임의 증대에 대응하고, 제3회 지역간 표준화회의를 개최 함으로서, 제외국의 표준화 기관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는 일을 92년도 사업계획의 기본으로 한다.

또, 이 사업계획을 기초로, 92년도 수지예산을 편성 하지만, 아울러 TTC재정의 안정에도 유의 한다.

1. 표준화 활동의 계획적·효율적 추진

(1) TTC표준의 계획적·효율적인 작성

국제표준화의 동향등을 근거로, 회원으로부터 표준화의 요망을 반영해서 중기 표준화계획을 수

립하고, 공정성 및 투명성을 유지한 표준화활동에 의해 TTC표준을 작성한다.

또, 표준화에 관한 비약적인 업무량의 증대에 따라 회의실을 증설하고, 동시에 TTC표준을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해, 업무의 개선을 도모한다.

(2) 국제표준화 활동의 추진

먼저 제2회 지역간 표준화 회의에 있어서, TTC도 구미표준화 기관과 마찬가지로, 국제표준화 활동에의 기여를 표명하였다. 그 기본적인 방향은 CCITT(국제전신전화자문위원회)의 탁월성을 유지하면서, 정비된 조직을 기반으로 국제표준의 작성에 공헌한다.

92년도는 전문가기술자의 교류와 기술정보의 교환 등, 국제활동도 점점 본격화 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적절한 정세판단으로 TTC에 기대되는 역할을 완수한다.

(3)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관계 강화

ISO(국제표준화기구), JTC1(ISO/IEC 합동 위원회), INTAP(정보처리상호운용기술협회), RCR(전파시스템개발센터), NETWORK Management Forum 등,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전세계에 조화되는 TTC표준의 작성에 노력한다.

(4) TTC표준의 보급 및 이용촉진

제정 또는 수정된 TTC표준등을 출판하며, 동



시에 기술의 진보에 대응하기 위한 TTC세미나를 개최하고 그외에, TTC 관련기사를 소개하는 등, TTC 표준의 보급에 힘쓴다.

또, Object 식별자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외에, 통신기기의 고도화와 다양화에 대응하고, TTC 표준의 표시를 개선하는 등, 표준의 이용을 추진한다.

(5) 국내의 표준화 동향의 조사 및 연구

CCITT등의 국제표준화 동향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한다.

2. 지역표준화 기관과의 연계강화

(1) 제 3 회 지역간 표준화 회의의 개최

국제표준화 활동에 있어서, 「근대화, 유연성, 효율화, 협력」이라는 멜버른 정신(제 9 회 CCITT 총회결의 17)의 구현을 위해 이미 두번의 지역간 표준화 회의가 개최되었고 92년 11월에는 일본에서 제 3 회 지역간 표준화회의가 개최된다. 또, 제 2 회 B-ISDN Workshop도 일본에서 함께 개최되기 때문에, 이 회합에 대해서 완

전한 준비 및 지원등을 한다.

(2) 구미 표준화기관과의 연계강화

미국의 T1 위원회, 구주의 ETSI등과 전자식 자료교환 방법등을 포함한 정보교환을 하고, 상호의 효율적인 표준화 활동을 진행하며, 전세계와 조화된 TTC표준의 작성에 힘쓴다.

(3) 한국등 이웃 아시아제국의 표준화 단체와의 협력

한국등 이웃 아시아제국의 표준화 기관과의 연계에 힘쓴다.

3. 재정의 안정

표준화 활동의 활성화를 기반으로, TTC표준의 출판과 TTC세미나 등의 활동을 통해서, 사업수입 및 회비수입의 증가를 도모한다.

또, 올해는 회의실의 증설등을 위한 지출이 있겠지만, 지출은 중점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힘쓰며, 동시에 경비의 절감에 신경쓰고,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